

김 종 승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백자 형태를 응용한 금속조형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수연

조선백자 형태를 응용한 금속조형 연구

김 종 승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수연

인 준 서

이수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 문 초 록

한국의 전통적 미적 감각은 백의민족으로 상징하는 한민족의 특성상 화려함보다는 담백하고 은은한 맛이 잘 배 있으며, 불교와 유교라는 종교 색과 국난 극치를 슬기롭게 이겨낸 인고의 정신, 장인들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재주, 또한 미를 숭상하는 예인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는 각종 예술품과 공예품 등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 조상이 남겨놓은 유·무형의 전통문화 중 조선 시대 문화의 근원적 밑바탕이 되어온 유교사상과 함께 그 시대상을 반영한 공예 미를 떠올려 보자면 그 중 하나로 조선백자를 들 수 있겠다.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도자기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표현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백자 형태에 나타난 조선시대 도자기에 표현된 조형미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백자 형태의 이미지를 조형 형태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의 조형요소 중 하나인 선적 요소를 활용하여 금속이 가지는 물리적이고 재료적인 특성을 살리고 도자기 제작기법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선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조선백자 이미지와는 다른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디자인의 조형요소 중 선은 사물의 형태와 특성 및 성격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형 단위이며, 또한 그 자체를 변화시켜 감정과 추상적, 구상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로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이 작품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된다. 이러한 선의 특징들을 살려 조선백자 외형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곡선의 미적 요소와 디자인에서 선이 갖는 비례, 강조, 조화, 반복, 균형 등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공간에서 장식적인 기능을 갖는 현대적인 조형작품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하였다.

제작 방법으로는 동선을 소재로 하여 꽃이나 잎과 같은 유기적인 자연물을 개체로 제작한 후 향아리가 갖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개체들의 자연스러

은 반복과 결합의 방식을 응용하여 작품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은 실용적 기능에서 벗어나 외면적으로 응집동결(凝集凍結)된 조선백자가 가지는 형태를 회화적으로 표현, 공간에 장식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형태를 연구하였다.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질감과 화학적인 표면 착색, 아크릴 채색 방법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색감에 분위기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전통은 지난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에 맞게 바뀌어가는 끊임없는 창조과정이다. 따라서 조선백자에서 보이는 한국공예 미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목 차

국문초록

I.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본론.....	4
1. 한국의 미와 조선시대 백자.....	4
1) 한국의 미.....	4
2) 조선시대 백자.....	8
(1) 형태 변천과정.....	8
2. 조형 요소로서의 선.....	12
1) 선의 종류 및 특성.....	12
2) 작품에 나타난 선적표현.....	13
3. 작품설명.....	17
1) 작품연구.....	17
2) 작품.....	20
III.결론	38
참고문헌.....	40
ABSTRACT(영문초록).....	42

작 품 목 차

[작품 1] 답다 1	20
[작품 2] 답다 2	22
[작품 3] 답다 3.....	24
[작품 4] 답다 4.....	26
[작품 5] 답다 5.....	28
[작품 6] 답다 6.....	30
[작품 7] 답다 7.....	32
[작품 8] 답다 8.....	34
[작품 9] 답다 9.....	36

표 목 차

< 표 1 > 조선백자 시기별 특징과 형태변화	11
---------------------------------	----

그림 목 차

< 그림 1 > 회선(Involution)	16
< 그림 2 > The Leaf	16
< 그림 3 > 개체들의 그림자와 원근감	17
< 그림 4 > 개체들의 조합	18
< 그림 5 > 표면착색 방법	19
< 그림 6 > 회화적 표현.....	19

I. 서론

1. 연구목적

한국공예 미의 이론적 개념을 정의했던 대표적인 이론가 중 고유섭¹⁾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공예 미의 특색을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비정제성’, ‘무관심성’이라 하였고 ‘세부가 치밀하지 않은 데서 더 큰 전체로 포용 되고 이런 한국미술의 특징을 또 다른 말로서 ‘구수한 큰 맛’ 이라고 하였다.

독일 제켈²⁾ 교수 또한 ‘생명력(vitality)’, ‘조작 없는 자연성(spontaneity)’, ‘기술적 완벽에 대한 무관심(unconcern for technical perfection)’이라고 한국미를 표현하였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공예 미’를 이미지로 떠올려보면 조선백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려청자나 분청사기의 미적 특징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교와는 다른 조선 시대 백자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단아한 특징은 단순히 도자기 기능만이 아닌 조선의 유교적 사상과 시대상황을 담고 있으며 한국 정서를 미적으로 표현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조선백자에 나타난 한국공예 미의 특징을 선행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표현 방법으로는 디자인 조형 기본요소인 선을 이용하고자 한다. 선은 사물의 형태와 특성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 조형단위로써 그 자체를 변화시켜 다양한 조형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선의 다양한 표현 방법은 현대미술에서 형태와 윤곽을 표현하는 원초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

1) 고유섭 [高裕燮 1905~1944] 호 우현(又玄). 경기도 출생. 1925년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부터 1930년까지 경성대학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경성대학 연구실의 조수가 되었다. 1933년 개성박물관장을 지낸 뒤 연희전문·이화여전 교수를 역임하면서 국내의 명승·고적·사찰을 답사·연구하였다.

2) 디트리히 제켈[Dietrich Seckel 1910~2007]은 베를린에서 태어나 베를린 대학에서 문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했으며 1930년대 말 나치 독재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1947년까지 머물면서 일본의 불교미술과 동양미술을 폭넓게 연구했다. 1975년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 미술사학 교수로 지냈다. 전후 독일에서 동양미술사 연구와 교육의 기틀을 확립한 학자로 평가된다. 주요 저서로는 『불교미술』, 『동아시아의 불교미술』 외에 『像을 넘어』 등이 있다.

자체만으로도 표현의 도구가 된다.

이에 전통은 지난날의 흘러간 문화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
에 맞게 바꾸어가야 할 끊임없는 창조과정이며 원형이다. 따라서 조선백
자에서 보이는 한국공예 미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조형작업을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조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은

첫째, 조선백자에 나타난 한국공예 미의 특징을 국내외 미학자들의 이
론서를 통하여 조사해 보고 단행본과 국내논문 등을 고찰하여 이론적 배
경을 정립한다. 이에 조선 시대 유교사상으로 형성된 사회적 배경이 예
술품에 끼친 영향과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조선백자의 형태 형성과
정과 변천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둘째, 작품 표현에서 디자인 조형요소인 선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특징
을 알아보고 이를 적용한 선행 작가들의 사례를 참고문헌과 사진 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선백자가 가지는 미적
요소와 선이 가지는 조형요소를 융합시켜 공간에서 장식적인 기능을 가
지는 현대적 조형작품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함으로써 한국공예 미를 바탕
으로 만들어진 조선백자가 가지는 순수하고 단아한 특징을 조형화할 기
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디자인적 측면에서 꽃이나 잎과 같은 유기적인 자연물을 모티브로, 조선
백자가 가지는 소박하고 단아한 형태를 개체들의 반복, 비례, 강조, 조화
균형의 형식을 적용하며, 작품은 실용적 기능에서 벗어나 조선백자가 가
지는 형태미를 회화적 조형형식으로 입체화한다.

재료는 적동(赤銅)과 동선(銅線)을 소재로 하며, 기법적 측면에서 착색 방

법으로는 파티네이션(Patination)기법과 아크릴칼라 (Acrylic color)를 사용한다. 파티네이션 기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첫째, 염화암모늄1.5 : 염화나트륨1.5 : 암모니아3 : 물100의 비율로 한 톱밥 착색과 둘째, 질산동2 : 염화나트륨1 : 물10을 비율로 한 톱밥착색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주로 사용한 아크릴 칼라는 철 성분이 들어간 아크릴칼라와 기존 아크릴칼라와 비슷한 계열의 안료를 섞어 표면 질감에 변화를 유도하고자 조합하여 사용한다.

II. 본론

1. 한국의 미와 조선시대 백자

1) 한국의 미

역사적으로 우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토대가 된 아름다운 전통의 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미는 같은 문화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형성된다. 이러한 미의 특질을 바탕으로 한국공예 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한국미는 요란하지가 않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때로는 적막하다. 그것은 작품 자체의 완전한 조화에도 있지만, 주위환경이나 자연과의 융합, 조화가 잘되어있기 때문이다. 생명감 넘치는 무작위적, 자연주의적 조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색을 줄이고 원재료의 특성 그대로를 될 수 있는 대로 살려서 자연과 부딪치지 않는 부드러운 조화를 만들어준다.³⁾

둘째, 한국미는 정밀한 세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밀하고 완전한 세부는 기술과 통하며, 인공적인 성격을 작품에 부여한다. 세부에 너무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 효과가 원만하며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다.⁴⁾

셋째 한국미는 대체로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움이란 말이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의식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나 기계적인 완벽성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본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선백자에 나타난 한국의 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미를 연구한 대표적인 국내외 미학자들에 대하여 알

3) 권영필 외 지음, 『한국의 美를 다시 읽는다.』, 돌베개, 2005, 경기도

4)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1978, 경기도, 26p

5) 호윤정, <한글의 새로운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서울

아보고 그들이 주장한 한국미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 토대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우현 고유섭은 한국에서 최초로 서구의 미학을 받아들여 그것을 기초로 한국 미학의 바탕을 일구었다.

그는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미의 특색을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 ‘구수한 큰 맛’이라 하였다. 기교의 미학을 추구하는 다른 문화권에서 보면 무기교는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듯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무기교의 기를 완성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기교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작은 손의 기교를 벗어나야 좀 더 큰 기교를 나타낼 수 있고, 작은 손의 기교를 벗어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인간의 자기완성을 위함이라 하였다. 이것이 탈기교의 기교의 정신세계이다. 기교를 벗는다는 것은 작고 소심하며 얇은 껍질을 벗고 크고 관대하며, 깊고 넓은 높은 인격으로 살아가려는 지혜를 갈망하는 생활의 태도이다.”⁶⁾

야나기 무네요시⁷⁾는 고유섭에게 큰 영향을 준 학자이다. 그는 ‘자연과 역사는 언제나 예술의 어머니’를 강조하여 중국, 일본, 한국의 자연풍토와 예술을 비교하여 한국미를 설명하였다. “지리적으로 대륙인 중국의 예술은 의지(意志)의 예술이라 하였고, 섬나라인 일본의 예술은 정취의 예술이며 반도인 한국의 예술은 비애(悲哀)의 예술이라고 규정하였다. 중국의 예술은 장대한 형(形)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예술은 아름다운 색(色)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한국의 예술은 가느다란 선(線)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대륙의 형태미는 강한 것으로, 섬나라의 색채는 즐거움으로, 반도의 선은 미의 쓸쓸함으로 각각 다르게 타고난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⁸⁾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도자의 미는 ‘자연’에서 오는 것이라 믿고 있었다.

6)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서울, 274p

7) 야나기 무네요시 [柳宗悅 유종열 1889~1961] 일본의 민예연구가·미술평론가. 미술사와 공예연구 및 민예연구가로 활약하면서 도쿄에 민예관을 설립하여 공예지도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광화문 철거가 논의되었을 때 적극 반대하는 등 한국의 민속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1924년 조선미술관을 설립했고, 이조도자기 전람회와 이조 미술전람회를 열기도 했다.

8)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경기도, 35p~36p

“그가 느낀 백자의 맛은 가련한 선의 맛을 포함하여, 자연, 자유분방, 단순, 여유, 가련 등과 다른 많은 맛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가 표현한 가련 미는 조선도자 등에서 나타나는 함축미나 여러 미감 중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⁹⁾

최순우¹⁰⁾는 한국 전통미술을 풍토양식과 집단개성으로서 표출되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솔직하고 가식 없이 표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험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은 산들이나, 메마르거나 기름지지도 않은 들, 슬플 것도 복된 것도 없었던 덤덤한 살림살이를 하고 순한 버섯처럼 산기슭에 오종종 모여서 돋아나 의좋은 초가지붕의 정다움처럼 순박하게 살아온 것이 풍토 속의 전통적인 삶이었다고 얘기한다.¹¹⁾

그는 한국의 미를 순수한 우리말로 끌어내서 표현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몇 예들을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미의 답답하고 해식은 맛
어리 무던하고 익살스럽게 생긴 백자 항아리의 둥근 모습
따스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곡선의 조화
백자의 때때로 목화송이같이 따스하고 때로는 백옥같이 갓 맑은
살결의 감촉 외씨버선의 동탁(童濯)한 맵시”¹²⁾

“아무런 장식도 고운 색깔도 아랑곳할 것 없이 오로지 흰색으로만 구워낸 백자 항아리의 흰빛의 변화나 그 어리송하게만 생긴 둥근 맛을 우리는 어느 나라 항아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대견함을 느낀다. 이러한 백자 항아리들을 수십 개 늘

9) 김명숙, <미술세계 8월호 - '고유섭과 한국 미술사 가들의 한국미론'>, 한국 뿌리 문화 연구소, 2005, 서울

10) 최순우 [崔淳雨 1916 ~1984]고고미술학자·미술평론가. 본명 희순(熙淳). 개성 출생. 개성 송도(松都)교보를 나와, 개성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당시의 관장 고유섭(高裕燮)에게서 감화받고, 고고미술에 뜻을 두었다. 8·15광복 후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활동, 미술과장, 학예수석연구실장, 관장을 역임하였다. 현대미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을 확장, 발전시켰다.

11) 김명숙, 앞의책

12) 권영필, 앞의책 228p

어놓고 바라보면 마치 어느 시골 장터에 모인 어진 아낙네들의
흰옷 입은 군상들이 생각나리만큼 백자 항아리의 흰색은 우리
민족의 성정과 그들이 즐기는 색채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¹³⁾

그는 전통 한국미술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군더더기 같은 장식을 배제
한 단순 간결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대범만이 우리 미술의 근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순우의 ‘전체를 조망하는 대범’의 한국미의 개념은 바로 세부에 치중
하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전제하는 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
는 고유섭이 한국 고유의 조형미 특성 중 하나로 지적한 ‘큰 맛’과 연
결¹⁴⁾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미를 연구한 대표적인 국내외 미학자들 중 최순우, 야나
기 무네요시, 고유섭 선생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이들의 견해는 한국미의
여러 이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장한 한국미의 특징
을 보았을 때 이들은 모두 한국의 미적 본질은 자연성과 정신성이 바탕
이 되어 나오는 순수, 단순, 소박, 단아 등의 표현들로 정리해 볼 수 있
겠고, 한국미는 이런 자연스러운 감각들이 발달하여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연구자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조선백자의 형태에서 나타
나는 한국공예 미를 몇 가지의 압축하여 응집동결(凝集凍結)된 단어들로
정의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표현에 있
는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13)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2008, 서울, 283p

14) 김명숙, 앞의 책

2)조선시대 백자

(1) 형태 변천과정

① 전기 (1392~1591)

조선백자의 성립은 기술적으로는 고려 백자의 전통과 중국 백자의 영향에 힘입어 이루어졌지만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이념의 핵심이 되었던 성리학의 영향이었다고 본다. 특히 신홍왕조의 전범(典範)을 보여야 했던 왕실에서는 검약과 실질을 숭상하는 유교 이념에 따라 고려왕조의 유산인 청자 대신 백자를 하나의 상징물로 삼아 신속하게 백자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교적 애민사상의 전향을 보여준 세종(1419~1450 재위)은 어기(御器)를 백자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용재총화」의 “세종조 어기로는 백자를 전용했다.”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¹⁵⁾ 이런 왕실의 비호(庇護)에 힘입어 조선백자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찍부터 조선백자의 특질이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전기의 백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단연 청화백자의 발생일 것이다. 15세기 백자는 안정된 형태를 지니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화된 장식 의장을 갖추게 되었다.¹⁶⁾

조선 전기 백자는 장식적인 기교는 없으나 형태가 담백하고 건국 초 왕조의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형의 종류로는 매병형의 입호(立壺)와 둥근 원호(圓壺)로 나눌 수 있는데 입호는 구연부가 직립하고 당당한 어깨를 이룬다. 원호는 구연부가 밖으로 말려있으며 구연부의 지름이 굽의 지름보다 크다. 무게 중심이 약간 밑으로 처져있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다. 풍부한 양감을 지니며 굽이 견고하여 안정감을 준다. 과장됨 없이 절제된 단정한 백자가 조선전기에 만들어졌다. (표1참고)

대부분이 순백자로 제작되었으나 청화나 철화백자에는 도화를 넣음으로써 단순한 문양이 아닌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전기의 특징이다.

15) 김영원, 『조선백자』, 대원사, 1991, 서울, 19p

16) 김재열, 『백자분청사기1』, 예경, 2000, 서울, 11p

②중기 (1592~1751)

선조 25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의 침략으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도자 사적 측면으로도 큰 손실을 주었다. 당시 왜군은 식량과 옷감뿐 아니라 조선전기에 생산된 다량의 도자기를 약탈해 갔으며, 당시 조선 도공의 납치까지 하였다. 하지만 17세기 중엽부터 복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활발한 생산 활동이 가마터들의 흔적으로 보이고 있다.

백자의 양식은 중기에 이르러 질적 향상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양상이 창출된다. “전체적인 항아리의 형태가 저 경(底徑)이 구경(口徑)보다 넓은 비례를 하고 있으며 주연(周緣)의 모양은 직립 구연 외에 예각으로 깎여 은행알 모양, 꺾어져 각이진 전을 가진 것 등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기의 형태상 흐름 중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구형 항아리의 비례가 정비례로 바뀌면서 현재, 백자의 백미라 불리우는 ‘달항아리’가 등장한다.”¹⁷⁾ (표1참고) 달항아리의 형태는 점점 둥근 달을 닮은 형태로 자리를 잡아간다. 현대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하여 세계각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③후기(1752~조선말)

18세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면에서 개혁이 추진되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공업의 발달로 중인 계층이 부상하면서 유교적 신분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청의 발달한 문물에 눈을 돌리게 된다. 특히 정조(1777~1800재위)는 과감한 개혁과 중국을 통한 선진 문화의 수용으로 새로운 문예 부흥기를 열었다.¹⁸⁾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유통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며,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실학이 서민들의 자각을 이루게 하여 서민 문화의 성장을 돕는다. 왕권의 약화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확산을 급속화 시켜 신분질서의 붕괴로 이어졌으며 양반계층이 확대되어 이러한 사회상황은 미술의 사치화를 불러 오게 된다.

17)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교재신서, 2003. 서울

18) 김제열 앞의 책, 14p

“도자공예에서는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향아리 구연의 길이가 길어지고 직립하는 형태가 전형을 이룬다. 장신형 향아리의 경우 전체적인 입체감은 어깨 부분의 풍만 정도가 심해져 과장된 선을 그린다. 역시 순백자, 기묘한 형태의 청화백자, 철화백자가 제작되며 진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진사백자의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문양은 도식적인 필치가 양식화되면서 중기와 비교하면 전면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용준이라고 하는 용이 그려진 향아리 이외의 제작을 일절 금한다는 교시를 내림으로써 이러한 사치풍조를 제재하였다. 「영조실록. 30년. 7월 갑오년」”¹⁹⁾

또한, 조선 후기 백자의 특징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장식성이 강조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색은 벽옥 같은 화사한 색감이 감도는 청백자가 나타났다. (표1참고)

“19세기 후반 무렵 국운의 쇠퇴로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민간 자본 유입의 심화로 1884년 분원의 민영화가 결정되면서 중앙 관료로서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일본이 밀려들어 오면서 조선백자는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²⁰⁾

이로써 조선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조선백자의 형태와 장식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형태변화는 있지만 단아하고 소박함이 담긴 유교 정신과 풍만하며 양감이 강조된 간결한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는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19) 김영원 앞의 책, 106p

20) 김영원 앞의 책, 15p

시기	특징	형태
<p>전기 (1392~1591)</p>	<p>매병형의 입호(立壺)와 둥근 원호(圓壺)로 나눌 수 있는데 입호는 구연부가 직립하고 당당한 어깨를 이룬다. 원호는 구연부가 밖으로 말려있으며 구연부의 지름이 굽의 지름보다 크다. 무게중심이 약간 밑으로 처져있다.</p>	
<p>중기 (1592~1751)</p>	<p>구형 항아리의 비례가 정비례로 점점 변화된다. 달 항아리가 등장한다.</p>	
<p>후기(1752~조선말)</p>	<p>항아리 구연의 길이가 길어지고 직립하는 형태, 장신형 항아리는 어깨 부분의 풍만 정도가 심해져 과장된 선을 그린다. 순백자, 기묘한 형태의 청화백자, 철화백자가 제작된다. 문양은 도식적인 필치가 양식화되면서 중기와 비교하면 전면을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제작된다.</p>	

< 표 1 > 조선백자 시기별 특징과 형태변화

2.조형 요소로서의 선

모든 형태는 점, 선, 면 등의 개념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점이 이동하면 선이 되고 선이 이동하면 면이 되며 면이 이동하면 입체가 된다.²¹⁾

선은 점의 운동인 궤적이며, 그것이 이동한 경로이고, 집합으로서 모든 형태의 윤곽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감, 덩어리와 같은 윤곽 이상의 것일 수도 있다.²²⁾

1) 선의 종류 및 특성

선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이러한 선은 크게 직선과 곡선으로 나누어진다. 직선은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점을 움직이게 하면서 나타나는 선의 유형이다. 고정된 방향은 변함이 없으며 무한하게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직선에서와 달리 곡선에서는 긴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유연성을 지니는 곡선은 직선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선이다. 곡선은 직선의 측면에 계속된 힘이 가해져 생겨나는 것이며 그 힘이 가해질수록 원이 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한, 곡선은 변형된 모습인 복잡한 곡선이나 물결 모양의 파상선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유로운 손놀림으로 만들어지는 자유 곡선은 변화가 있고 유연성이 있으며 리듬을 표출한다. 따라서 곡선은 유연하며 불명료하며 여성적이고 섬세한 성격이며 우아한 조화를 표현한다.

선은 상대적인 느낌을 갖는데, 이것은 때때로 작품의 전체적 분위기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작품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며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의 성질은 조형적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하며 선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작품표현이 달라진다. 작가는 선의 다양한 성질

21) 아사쿠라 나오미, 『평면구성』 김학성 조열공역, 조형사, 1997, 서울, 43p

22) 허버트 리드, 『예술이란무엇인가』 윤일주 역, 을유 문화사, 1994, 서울 49p~50p

을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표현과 디자인을 고려해 따로 분리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이 가진 모든 물리적 성질들을 충분히 인식한 뒤 십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일부 성질들만을 활용하기도 한다.

작품들에서는 선의 반복, 교차, 확산 등에 의해 형태가 형성되며, 입체감, 운동감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선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표현은 비례, 통일, 강조, 조화, 대비, 율동, 반복, 균형 등의 조형원리에서 비롯된다. 선으로 표현된 작품들 안에서 각각의 원리들은 독립적으로 보아기도 하나,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³⁾ 그것은 이중의 역할을 하는 선의 속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의 길이를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구성의 통일성을 이루는 동시에 폭과 재질, 그 밖의 특성에는 차이를 두어서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다.

평면적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몬드리안²⁴⁾의 작품에서도 선의 굵기의 차이나 평행선 간격의 변화 등에 따라 미묘한 3차원적인 표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은 그 굵기와 농담, 간격, 방향 등 다양한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복잡한 원근지각이나 공간감 등을 형성한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의 조형적 요소와 표현방법을 알아보고, 공간과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성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2)작품에 나타난 선적 표현

존배(John Pai)²⁵⁾는 구성주의의 경향을 나타내며 사물을 근원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전체의 구조를 다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서

23) 김소연, <선에 의한 조형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서울

24) 몬드리안 [Mondrian, Piet 1872~1944] 네덜란드의 화가로 아머르즈포르트에서 출생. 수평선과 수직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순수 기하학적 형태의 화면 구성을 발전시켰으며, 색은 삼원색과 흰색·검정·회색에 한하여 이용한 사람이다.

25) 존배[John Pai1937]서울에서 태어나, 1949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프랫 인스티튜트(이후'프랫')를 졸업하고, 프랫의 최연소 교수가 된 이래 조각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계를 표현하려 했다. 그는 짧은 길이의 철사를 잘라낸 후 다시 용접하여 새로운 형상을 탄생시킨다. 초기작 ‘무제’는 세포 구조를 연상케 하면서도 내면적으로 강한 실존적 경향을 띤다. 선들이 끊임없이 포개지고 연결돼 크고 작은 원형의 덩어리를 이루는 ‘길이 무게’는 균형과 불균형, 외연과 내연의 극단성을 뛰어넘어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⁶⁾

1996년경부터 최근에 이르는 시기로, 이전시기와는 사뭇 다른 형식을 전개한다. 그는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길고 연결된 선들을 마음대로 접고 구부렸고, 결국 하나의 접점을 이루게 하였다. 또한, 끊어지는 선들을 사용하여 더욱 우발적인 방식을 취했다.

이렇듯 존배의 작업은 개개의 철사를 용접하여 수많은 과정을 반복하여 비로소 하나의 구조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그의 작업에서, 개개의 철사들은 최소의 단위이며, 그가 처음에 구상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존배는 반복을 통하여 자연 과학 분야에 관한 관심, 자연과의 조우, 그리고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이나 생각들을 표현한다.

최소 단위, 하나의 철심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개성을 지니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많은 이야기가 담긴 그의 작업은 무심한 듯한 추상적인 형태와 행위가 이루어낸 그의 구조적 오브제들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그의 사상에 동화시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림1>

정광호²⁷⁾의 작품은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소의 단위인 선에서 출발하여 나뭇잎의 잎맥과 항아리의 깨진 금 등의 선을 따라다닌다는 표현 방식으로 회화에 가깝게 느껴지는 자신의 작품을 ‘비-조각’이라고 명명한다.²⁸⁾ 입체공간과 평면공간의 위상을 자신이 만드는 오브제를 통하여 다른 위상에 놓이도록 하는 실험을 하였다.

26) 로댕 갤러리 ‘존배 조각 :공간의 시학’ 해설 요약 2003, 서울

27) 정광호[鄭廣鎬,1959~]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조각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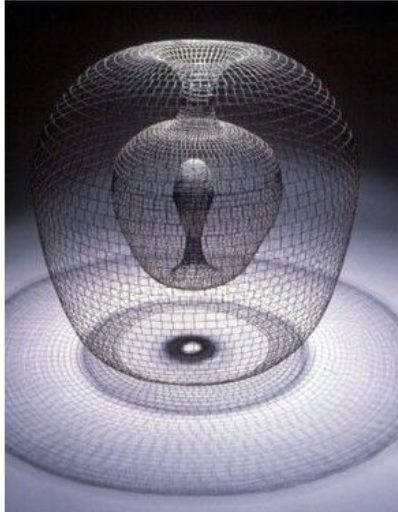
28) 아트선재미술관 ‘정광호 개인전’, 2000, 경주

그 선은 캔버스 표면에 그려지는 대신 투명한 실제 공간 속에 설치된다. 그리하여 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윤곽 지워지는 주변의 공간, 빛, 그림자 등 모든 것이 실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그로 인해 감상자들에게 살아 있는 시각적 경험을 준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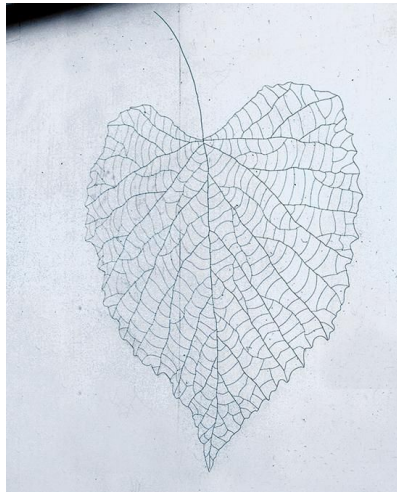
선행연구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선적인 표현을 알아본 결과, 모두 회화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공간 속에 그림을 그리듯 형체를 창조해냈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선을 이용하여 극대화했다는 결론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형태, 공간의 개념에 대하여 더욱 가깝고 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의식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며, 선적 요소와 금속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다양성을 적용한 조형화의 표현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조형 요소로서 하나의 선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데 쓰이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선은 그 자체로서 감정과 추상적, 구상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며, 그리는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 작품으로 표현됨으로써 조형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선이 새로운 조형언어로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그림 1 > 회선(Involution)
존배, 철사, 1974



< 그림 2 > The Leaf
정광호, 동선, 1999

3. 작품설명

1) 작품연구

누구나 향아리를 볼 때 그 속에 무엇이 담길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이런 기능적인 면이 아닌 조선의 백자가 가지는 푸근함과 넉넉함이 작품의 형태와 표현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한국미의 바탕에 있는 부드러운 정신과 조용함, 자연스럽게 담백한 조선백자의 조형 형태와 미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 방법으로는 한국미술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선의 조형요소를 응용하여 강조, 조화, 율동, 반복, 등의 조형원리를 동선으로 만들어진 개체들의 조합을 통하여 하나의 형태로 완성한다.

선으로 제작함으로써 투과되는 향아리 내부와의 소통과 선과 선의 중첩, 선과 그림자 겹침의 우연성을 보여주고자 의도하였다. 또한, 입체적인 작품의 특성상 생기는 앞뒤 개체들의 원근감이 이를 좀 더 확실히 보여준다. <그림3>



< 그림 3 > 개체들의 그림자와 원근감

조선백자의 외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작품의 형태 제작 방법으로는, 꽃이나 잎과 같은 유기적인 자연물을 모티브로 하여 개체화시켜, 자연스러운 반복으로 말미암은 중첩 효과를 의도하였다. <그림4>



< 그림 4 > 개체들의 조합

또한 작품을 표현 하는 데 있어 질감과 표면 착색 방법을 연구하여 색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을 파티네이션 기법과 아크릴칼라로 보여 주고자 하였다. 파티네이션 기법으로는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염화암모늄1.5 : 염화나트륨1.5 : 암모니아3 : 물100의 비율로 한 톱밥 착색과

질산동2 : 염화나트륨1 : 물10을 비율로 한 톱밥착색 기법을 사용하였다.
 아크릴 칼라로는 철 성분이 들어간 금속 느낌의 아크릴과 기존 아크릴칼라에 안료를 섞어 연구자가 의도하는 색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의 착색과정을 거친 후 매트 바니쉬(Matte Varnish)로 마무리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5>



< 그림 5 > 표면착색 방법

작품 중에서는 벽걸이 형태로 부조화 하는 작업을 하여 캔버스라는 재료를 접목시킴으로써 회화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그림6>



< 그림 6 > 회화적 표현

2) 작품



[작품 1] 담다1, 800 × 800 × 150 (mm)
Copper, Canvas, Potassium sulfide col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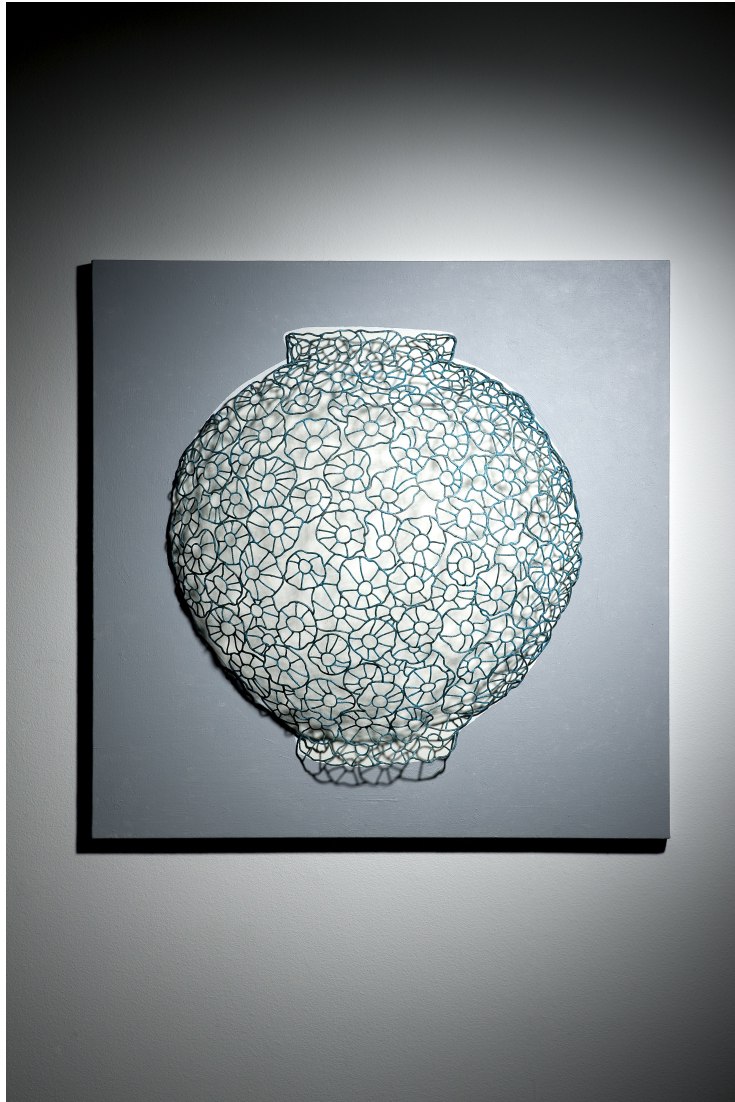
[작품 1] 답다1

본 작품은 조선백자 이미지에 금속을 소재로 하여 결합한 초기 작업으로써 형태는 조선 시대 향아리 중 풍만하고 단아한 미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달향아리’의 형태를 차용하였다.

달향아리가 내포하고 있는 조선 시대 공예 미와 형태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개체의 모양을 둥글고 유기적인 자연물의 이미지로 제작해 보았으며, 금속 각각 크기에 변화와 볼륨감을 주어 확산하여지는 느낌이 보이도록 배치했다.

개체는 입체적으로 단조하여 각각의 개체들을 통해 볼륨감을 주었고 금속이 가지는 특징 중 빛에 의한 반사 효과를 살려 주어 이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단조와 동시에 질감처리하였다. 황화갈륨 표면 착색방법을 사용하여 위에서 표현한 효과와 적동이 가지는 본연의 느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바탕에 사용된 캔버스에는 무광, 백색의 직선적 질감을 주어 금속과의 대비를 보여주어 금속이 줄 수 있는 형태와 질감에서 극적인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2] 담다2, 800 × 800 × 150 (mm)
Copper, Canvas, Patination

[작품 2] 답다2

전작에서 보이는 개체의 외형과 질감 부분이 면적인 요소가 강하게 처음 제작한 작업에서 사용한 개체의 외형과 질감 부분을 선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후 결합해 달항아리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흙을 소재로는 다루기 어려운 선이라는 요소를 금속으로 제작함으로써, 가늘지만 형태 보존성이 높은 물리적 특성을 부각하고 금속이 가지는 접합의 용이성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자연물을 표현함에 이전방법과는 다른 작업으로 변화시켰다.

항아리의 풍만한 느낌을 주기 위하여 개체의 크기를 캔버스와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게 배치하고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측면으로 갈수록 선의 중첩 효과를 이용하여 밀도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작품에서는 항아리의 외부와 내부와의 공간 간의 관계와 소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이 입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명 혹은 빛에 의한 그림자와의 관계성도 고려하여 제작해 보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빛의 방향에 의해 생겨나는 그림자의 형태도 작품 일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캔버스의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채색함으로써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표면처리방법은 톱밥착색(염화암모늄 1.5 : 염화나트륨 1.5 : 암모니아 3 : 물 100)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이 지나 녹이 생긴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어 자연에 순응하는 세월의 깊이가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작품 3] 담다3, 800 × 800 × 150 (mm)
Copper, Canvas, Patination

[작품 3] 담다3

본 작품은 두 번째 작품 비슷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다. 식물의 잎 이미지를 개체화하고 중첩해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달항아리 형태가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부조의 형태로 제작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 풍만감이 느껴지도록 작업하여 한국적 미의 단아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자의 농담 변화는 형태를 한층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이번 작업은 캔버스에 채색된 색과 파티나 착색(질산동 2 : 염화나트륨 1 : 물 10)된 달항아리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채색에서 비슷한 계열의 녹색계열을 사용하되 톤을 낮추어 변화를 주었다. 또한, 매트 바니쉬로 두께감이 있게 마감 처리하여 금속이 가지는 연결 부분의 날카로운 느낌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자 하였다.

캔버스 바탕에 채색 되는 색의 비율을 나누어 마치 항아리가 놓인 것 같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려고 의도하였다.



[작품 4] 담다4, 800 × 1000 × 150 (mm)
Copper, Canvas, Acrylic coloring

[작품 4] 답다4

본 작품은 달항아리가 가지는 원형에서 벗어나 개체로 표현된 꽃잎의 날림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이미지로 자 하였다.

동선으로 제작된 개체들의 조합으로 달항아리 일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형의 일부를 보여주고 배경 부분에서 달항아리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체가 개체화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형에서 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의도하였다.

캔버스의 바탕과 동선으로 제작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크릴 컬러링 하여 통일되어 보이는 느낌을 의도하였다. 또한, 자연과 세월에 순응하는 듯한 조화가 이루어져 보일 수 있도록 색의 채도를 맞춰 저 채도로 채색하여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아크릴컬러에 비슷한 계열의 안료들을 조합시켜 자세히 보았을 때 몇 가지 안료들의 색들이 부분별로 조화를 이룬다.



[작품 5] 담다5, 700 × 400 × 400 (mm)
Copper, Acrylic coloring

[작품 5] 답다5

이번 작업에서는 조선 시대 후기 향아리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적용하였다.

부조형태였던 작업들과는 제작방법을 달리하여 입체화시키면서 선이 가지는 장점을 살려 향아리의 내부와 외부로 동시에 보여주고, 반대편에서 보이는 개체들과 앞에서 보이는 개체들의 중첩 효과가 나타나도록 의도하여 표현하였다. 그로 멀리 있는 개체와 가까이 있는 개체와의 자연스러운 원근감과 크기 변화에서 색의 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조선 시대 백자의 조형 형태가 보여주는 단아하고 풍부한 양감의 형태이지만 채색방법을 통해 푸른 계열의 화려한 색감을 주어 공간에 놓였을 때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하 백자의 푸른색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채색하였으며 한가지 색이 아닌 여러 푸른 계열의 색을 조합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매트 바니쉬 에 불투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안료를 섞어 표면의 질감이 지니고 있는 통일성을 보여 주고자 하였고 동시에 표면의 느낌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작품 6] 담다6, 800 × 1000 × 150 (mm)
Copper, Canvas, Acrylic col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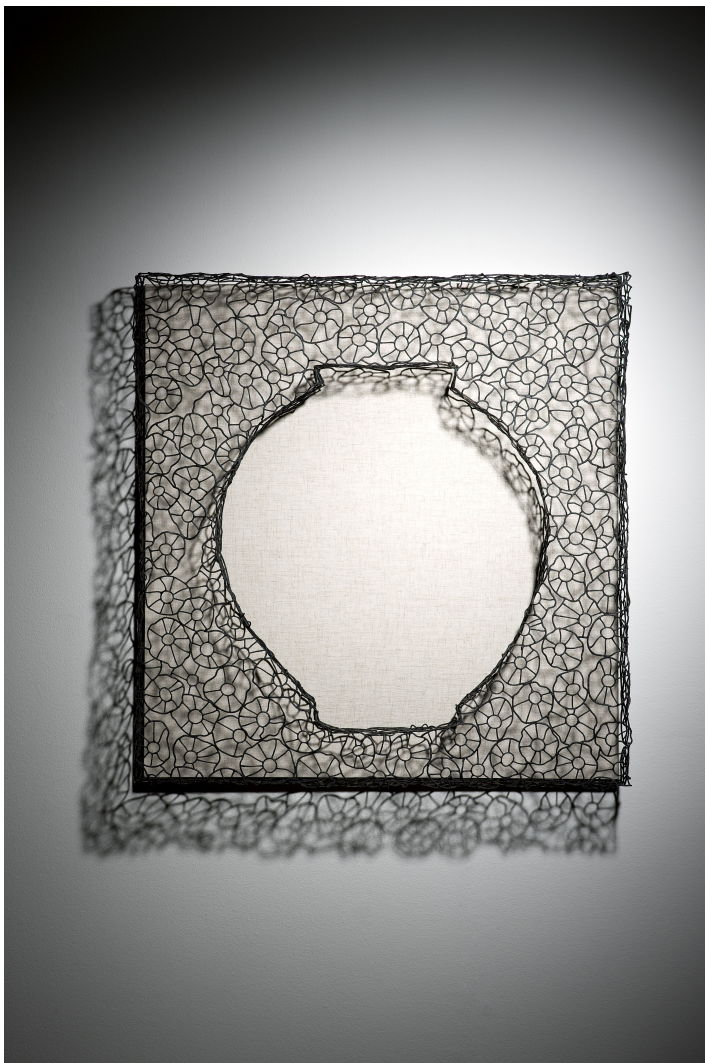
[작품 6] 답다6

조선 시대 후기 향아리의 형태로 세로로 길어지고 이전작업에서 보여주었던 표현 방식과 같이 부조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꽃 이미지의 개체를 자유분방하게 배치한 후 조합시켜 전체적인 향아리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꽃잎을 단순화시켰지만, 꽃잎의 자연스러운 외각 라인을 살려서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 나타난 효과는 빛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에서 나타난 선과 작품을 표현한 선, 두 종류의 선이 중첩되어 보이게 의도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빛에 의해 변화하는 자연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바탕이 되는 캔버스에 흙의 질감을 주기 위해 도색용 분무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향아리의 소재인 흙이 연상되는 듯한 느낌을 주어 하나의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작품 7] 담다 7,800 × 800 × 120 (mm)
Copper, Canvas, Acrylic coloring

[작품 7] 답다7

본 작품은 항아리의 입체감을 살려 부조형태로 표현했던 이전 작품들과 반대로 발상하여 배경 부분에서 입체감을 주어 항아리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항아리를 둘러싼 외부의 공간을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개체의 조합으로 제작되었고, 항아리의 볼륨감이 직접 나타났던 이전 작업들과는 달리 배경을 박스의 형태로 입체화시켜 빈공간의 깊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바탕에 보이는 캔버스 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어 이러한 방법은 소재의 대비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고, 동선을 흑색의 철 느낌으로 채색함으로써 그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설치되었을 때 빛을 주는 정도에 따라 그림자의 효과도 달라져 선이 주는 느낌의 변화를 의도하였다.



[작품 8] 담다8, 800 × 1000 × 120 (mm)
Copper, Canvas, Acrylic coloring

[작품 8] 답다8

본 작품은 조선 시대 후기 향아리의 외형에서 느껴지는 곡선의 형태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향아리 부분이 아닌 향아리를 제외한 여백 부분을 입체화시킴으로써 향아리의 푸근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동선으로 제작된 부분은 상아색으로, 바탕 캔버스 부분은 먹색으로 자연스러운 농담을 주어 채색함으로써 흑백의 확연한 대조와는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작업들과는 달리 배경을 먹색으로 하여 바탕에 투과된 그림자의 효과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보았다.



[작품 9] 담다9, 700 × 500 × 500 (mm)
Copper, Acrylic coloring

[작품 9] 답다9

두 번의 중첩 효과를 보였던 전 작업들과 다르게 여러 번의 중첩을 주어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항아리의 풍만하고 안정적인 밑 부분과 위에서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입구 부분을 의도적으로 겹치게 보여줌으로써 곡선과 직선이 가지는 외형의 대조적인 느낌을 하나의 형에서 보여주려고 하였다.

조선 항아리의 이미지를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변형하고 선이 가지는 투과성을 이용하여 중첩 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기법적 측면에서 채색 방법으로 철가루 질감의 흑색 아크릴칼라를 사용하여 전체를 착색하였다. 얇은 선이지만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개체들이 하나의 항아리가 되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공간에 놓였을 때 빛에 의해 생기는 철가루의 빛 반사 효과가 나타나 그림자와 대치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Ⅲ. 결론

전통의 가치는 현대라는 시대를 통해 늘 새롭게 변화해야 하며 또한, 조형정신에서 전통의 미적 가치는 현대의 시대상에 맞추어 새롭게 재해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에 우리의 조상이 남겨놓은 유형의 전통문화 중 공예 미와 공예인의 정신은, 국난 극치를 슬기롭게 이겨낸 인고의 정신, 장인들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재주, 미를 숭상하는 예인의 정신으로 각종 예술품과 공예품을 통해 전해져 왔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공예 미가 담겨있는 조선 시대 백자의 형태를 작품의 모티브로 차용 후 한국 전통의 미적 가치를 디자인 조형요소인 선을 활용하여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으로는 조선백자에 나타난 한국 공예미의 특징을 국내외 미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조사해 보았고, 조선 시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배경이 예술품에 끼친 영향과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조선백자의 미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백자의 형태 형성과정과 변천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작품 표현을 위해 디자인 조형요소인 선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적용한 선행 작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선의 활용 가능성 알 수 있었다.

조형적 측면에서 조선백자가 가지는 미적 요소와 선이 가지는 조형요소를 융합시켜 공간에서 장식적인 기능을 가지는 현대적 조형형태로 재해석하여 조선백자가 가지는 순수하고 단아한 특징을 조형화할 수 있었다.

꽃이나 잎과 같은 유기적인 자연물을 부재로 개체화하여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조선백자가 가지는 형태미를 회화적 조형으로 입체화할 수 있었다. 재료는 적동(赤銅)과 동선(銅線)을 소재로 파티네이션(Patination)기법과 아크릴칼라 (Acrylic color)를 사용하여 색감과 표면 질감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였다.

이로써 연구와 작품 제작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백자에 담긴 한국의 미와 외형적인 형태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적인 단아하고 정갈한 선 비례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조선백자의 형태를 디자인적 조형요소 중 하나인 선과 활용하여 금속작업으로 응용함으로써 다양한 제작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다.

둘째,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했던 기술적 측면에서 선과 선을 연결하고 질감과 표면 착색 기법을 연구해볼 기회가 되었으며, 선행 작가들의 작품을 조사해 보면서 선적 표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선은 작가들에게 그들의 사상과 조형 형태를 담을 수 있는 중요한 표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자가 의도하는 작품의 의미가 감상자에 의해 재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공간과 빛에 의한 현상들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공예미를 주제로 연구하면서 작업에 근간인 전통의 미적 가치를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금속을 소재로 한 다양한 접목과 함께 표현방법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영필외 지음, 『한국의 美를 다시 읽는다.』, 돌베개, 2005, 경기도
김영원, 『조선백자』, 대원사, 1991, 서울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서울
김원룡,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1978, 경기도
김재열, 『백자분청사기1』, 예경, 2000, 서울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경기도
아사꾸라 나오미, 『평면구성』 김학성 옮김, 조형사, 1997, 서울
야나기 무네토시, 『조선을 생각한다.』, 심우성 옮김, 학고재, 1996, 서울
에카르트, 『조선미술사』, 권영필 엮음, 열화당, 2003, 경기도
월간미술엮음, 『세계미술 용어 사전』, 월간미술, 1998, 서울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학고재, 1996, 서울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경기도
최순우,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학고재, 2008, 서울
최순우, 『최순우 전집』, 학고재, 1992, 서울
허버트 리드,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옮김, 을유문화사, 1994, 서울
호암미술관, 『조선백자전1』, 삼성문화재단, 1983, 서울
호암미술관, 『조선백자전2』, 삼성문화재단, 1985, 서울
호암미술관, 『조선백자전3』, 삼성문화재단, 1987, 서울

<정기 간행물>

- 김명숙, “미술세계 8월호 - 고유섭과 한국 미술사 가들의 한국미론”, 한국 뿌리 문화 연구소, 2005, 서울
로댕 갤러리 “존배 조각 :공간의 시학”, 2003, 서울

<학위논문>

- 김소연, 「선에 의한 조형적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서울
- 김지영, 「선재를 이용한 입체표현 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인천
- 김진아, "고유섭의 한국미술론을 통한 한국 현대도에 작품해석 연구", 한국 기초 조형학회, 2009, 서울
- 박성숙, 「한국美의 독특성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서울
- 서영아, 「공간 이미지를 통한 금속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서울
- 엄익훈, 「현대조각에 나타난 반복, 집적, 증식의 표현기법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서울
- 조진희, 「조선시대 백자의 변천과정과 미감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울
- 지순임, "미학 예술학 연구, 한국예술의 해석가능성-한국미술에 나타난 미의탐색", 한국미학 예술학회, 2000, 서울
- 최윤정, 「조선백자의 조형 형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서울
- 천우선, 「선의 반복적 구성을 통한 금속조형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경기도
- 호윤정, 「한글의 새로운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서울

<웹사이트>

- <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
-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 <http://www.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 <http://da-arts.knaa.or.kr/> 국립예술자료원

ABSTRACT

A Study on Metal Moulding
Applying the Form of Joseon White Porcelain

Lee, Soo Yeon
Major In Metal Crafts
Dept,of Crafts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rected by prof. Kim Jong Seung

Due to the nature of the Korean race symbolized as the white-clad folk, the Korean traditional sense of beauty was infused with plain and delicate flavor rather than splendor, and has been inherited as the arts and crafts tinged with the religious color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the spirit of endurance that overcame the ultimate of national crises, the delicate and exquisite dexterity of artisans, the mind of artists who have admired beauty. Among tangible and intangible traditional culture that our ancestors handed down in this way, if we think over the beauty of crafts that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s together with Confucian ideas, the underlying basis of the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the white porcelain of the Joseon Dynasty can be one of the examples. It is because we can say that the beauty of the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can expressed the emotion of Korean people as well as the simple function of porcelain.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tri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esthetic quality expressed in the ceramics of the Joseon Dynasty

and express the image of the form of Joseon white porcelain in moulding form on its basis. In addition, the material features of metal was emphasized by using the linear element that is one of design elements, and the expression that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mage of Joseon white porcelain was tried by using line that is difficult to handle in ceramic making technique.

Among the design elements of design, line is the basic formative unit that can summarize the form and features of an object in the most simple and economic method, and as the element that can express emotion and abstract or concrete images by changing itself, it has formative values and meanings by embodying the feeling or thoughts of an artist. By vitalizing those features of line and making use of the esthetic element of beautiful curved line felt in the appearance of Joseon white porcelain and the formative element of line such as proportion, emphasis, harmony, repetition, balance and so on in design, it was reinterpreted and produced as a modern formative work that had a decorative function in a space. As the production method, after producing an organic natural object like a flower or a leaf with copper wire, the method of natural repetition and combination of individual units was applied to the natural form of a pot

Away from practical functions, the work was picturesquely expressed in the form of Joseon white porcelain that was exteriorly condensed, and the design form was studied in order to function as a decoration in a space. Through the experiment and research on texture, chemical coloring and acrylic painting concerning the expression of the work, various moods of color were tried.

Tradition does not stay in the past, but stays in endless process of creation for us to change according to ourselves. So, studying the work on the basis of the beauty of Korean crafts shown in Joseon white

porcelain, the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 beauty of tradition in the modern sense